

# 조선대학교, 대학혁신 지원사업 최우수 평가

송고시간 | 2020-06-11 15:29



전승현 기자



## 조선대 전경

[조선대제공.재배포 및 DB금지]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조선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연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체제를 지원하는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만든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 143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각 대학이 제출한 연차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했다.

평가 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최종심의·확정을 거쳐 A등급 30%, B등급 50%, C등급 20%에 해당하는 대학들을 선정했다.

조선대는 평가에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목표와 혁신사업 목표가 잘 연계됐고 사업 추진 실적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고 영역별 프로그램 수행실적이 뛰어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우수사례로 제시한 '실용 학문 기반 학습자 주도형 전공 설계 교육과정-스마트이동체 융합 시스템공학부 예시'는 대학특성화교육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대비한 지역인재 양성,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선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올해 총 44억3400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는다.

민영돈 총장은 11일 "이번 연차평가 결과를 통해 대학교육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 유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본 사업의 목표인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실사구시형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6/11 15:29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 조선대, 대학혁신지원사업 최우수 'A등급'

김경태 기자

승인 2020.06.11 17:47

조선대, 대학혁신지원사업 최우수 'A등급'

올해 사업비 총 44억3천400만원으로 증가



조선대학교는 11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체제를 지원하는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만든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 143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각 대학이 제출한 연차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했다. 평가 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최종심의·확정을 거쳐 A등급 30%, B등급 50%, C등급 20%에 해당하는 대학들을 선정했다.

조선대는 이번 평가에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목표와 혁신사업 목표가 잘 연계됐고, 사업 추진실적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고, 영역별 프로그램 수행실적이 뛰어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우수사례로 제시한 '실용 학문 기반 학습자 주도형 전공 설계 교육과정-스마트이동체 융합시스템공학부 예시'는 대학특성화교육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스

마트팩토리 구축에 대비한 지역인재 양성,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선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올해 총 44억3천400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는다.

민영돈 총장은 “이번 연차평가 결과를 통해 대학교육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 유도에 더욱 박차를 가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실사구시형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